

주간 규제 정보

Vol. 305

2020. 07. 27 ~ 2020. 08. 02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
2. 국산 시험장비 기반의 '내후성*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3
3.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한국-싱가포르, 의약품 GMP 상호인정 위해 첫걸음 내딛다 5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미국 워싱턴주, 향후 규제할 유해화학물질 함유 소비자 제품 우선순위 발표 6
6. 호주,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7종 추가 7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일본 보조 배터리 시장동향 9
8. 중국 탄산수 시장동향 15
9. 미국 가축 사료 시장 동향 20
10. 중국, 민감성 피부 화장품 수요 증가 24
11. 스위스 마스크 시장, CE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 32
12. 필리핀 수술용 마스크 시장동향 37
13.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42
14. 캐나다 전기·전자 인증제도 특징 및 절차 4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 의무화 -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붙임 참조)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금년 8월 중에 고시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①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②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에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7.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안전기준 고시 후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을 충족하는 법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시행규칙 제23조)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가 매년 6천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는데,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하여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누적 설치대수) ('16년) 115,959 → ('17년) 124,439 → ('18년) 130,72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안전사고 건수) ('16년) 61건 → ('17년) 70건 → ('18년) 56건 → ('19년) 52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가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년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하여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2. 국산 시험장비 기반의 '내후성*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 햇빛, 온도, 습기, 바람 등 실외 기후 환경요소에 견디는 성질

- 국제표준 선점으로 국산 시험장비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자동차나 건축물 등의 외장재처럼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장기간 햇빛, 비, 바람 등에 노출되면서, 갈라지거나 변색되는 등 제품의 물성이 저하되어 교체나 도색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햇빛, 온도, 습기, 바람 등에 견디는 성질, 즉 내후성이 강한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품의 실외 사용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내후성 시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승우 원장)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2013년 「옥외(실외) 내후성 촉진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여 국제표준(ISO/TS 21488)*으로 제정·발간되었다고 밝혔다.

* 표준명 : 옥외 자연 기후와 인공광에 노출시킨 플라스틱 소재의 내후성 시험방법
특히, 이번 표준은 국내 시험연구원인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개발한 국산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제정된 시험방법은 자연 태양광(낮)과 인공 태양광(밤)을 이용해 내후성 시험을 24시간 연속 실시함으로써 시험기간을 종전의 1/3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약 8개월 시험으로 2년간의 사용 결과 예측 가능
종전에도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촉진 시험법이 있었지만 청명한 날씨가 10개월 이상 유지되는 사막기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 시험방법은 야간에도 인공 태양광으로 사용 환경을 재현해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기후지역에서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국제표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KCL(김창환 책임연구원), (사)캠텍종합기술원(김성진 팀장), 한남대학교(최선웅 교수) 등 산·학·연이 협업해 개발했다.

* 시험장비 개발(KCL), 시험장비 제작(캠텍종합기술원), 국제표준화 추진(KCL, 한남대학교)
‘13년에 국제표준안으로 KCL이 최초 제안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내후성 시험장비 생산국의 견제와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제안 후 8년 만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 통상 국제표준 제정에는 3~5년이 소요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장비를 적용한 내후성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이 표준에 따라 시험하는 외국에서도 우리 시험장비의 구매가 기대되는 등 국산 시험장비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장비를 사용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장비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가운데, 국산 시험장비를 적용한 국제표준이 제정돼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2.0 전략」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시험·검사 장비를 활용한 시험방법 등의 국제표준화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

- 법정계량기로 최초 인증된 전기차충전기 서비스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은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등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 연구원은 올 1월부터 15개 업체 38개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 법정계량기 인증 절차: 형식승인(설계검증) → 검정(출시전 전수검사) → 재검정(설치후 유지관리 전수검사)

인증 완료된 50kW급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충전기는 설치 후 매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등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등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 중국은 올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관리대상 계량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미국도 관련 제도 준비 중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 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전기차충전기 기술기준 주요 내용 >

- 최대허용오차(교류충전기 1%, 직류충전기 2.5%)
- 온도·전류·전압·전자파 등 외부영향에 대한 오차변화 제한
- 조작방지 봉인, 소프트웨어 식별 요구사항 등
-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등 행정절차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한국-싱가포르, 의약품 GMP 상호인정 위해 첫걸음 내딛다

- 상대국 의약품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 상호인정 시범사업 8월 1일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 정부기관

○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상대국에서 발급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증명서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평가하게 됩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로 제조업자 의무사항임

□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GMP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양국의 규정과 제도가 서로 동등하고 국제기준과도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상 제품은 화학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의약품이며,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허가 후 정기점검 대상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동안 아세안(ASEAN) 국가 내 우리나라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간('14~'18년) 수출이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세안 의약품 시장규모 : ('18) 259억 달러(약 30조원)

※ 아세안 대상 의약품 수출액 : ('14) 314.8백만 달러 → ('18) 465.8백만 달러(48% 상승)

□ 이의경 처장은 “아세안 의약품 선도 국가인 싱가포르와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의약품이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데 있어 허가 기간 단축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미국 워싱턴주, 향후 규제할 유해화학물질 함유 소비자 제품 우선순위 발표

2020년 7월, 미국 워싱턴주는 2019년 제정된 우선순위 소비자 제품 선별에 관한 법안*에 따라 향후 규제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소비자 제품 11개에 대해 우선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 RCW 70.365.050 Identification of priority consumer products—Regulatory actions—Rules—Public notice.

법안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까지 워싱턴주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는 우선순위화학물질(priority chemical)로 규정된 6가지 범주의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6가지 범주의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은 RCW 70.365.010에서 규정된 다음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 (a) 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b) 프탈레이트(Phthalates)
- (c) 내연제(Organohalogen flame retardants)
- (d) 난연제(Flame retardants, 구체적 내용은 70.240 RCW하에 규정)
- (e) 페놀성 화합물(Phenolic compounds)
- (f) 폴리염소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정된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재 목록을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비재	주요 고려사항
난연제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전자제품	인체 노출, 사용량, 재활용 과정에서 노출
	여가용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 products)	인체 노출
PCBs	페인트, 페인팅 잉크	환경 방출
PFAS	카펫 및 러그	인체 노출, 사용량, 환경 방출
	가죽 및 섬유 가구	인체 노출, 환경 방출
	천 및 가죽 제품의 오염 방지 및 방수 처리	인체 노출, 사용량, 환경방출
페놀성 화합물(비스페놀)	음식물 및 음료의 캔	인체 노출, 사용량
	간접지	인체 노출, 사용량
페놀성 화합물(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alkylphenol ethoxylates))	세제	환경방출
프탈레이트	비닐 바닥재(Vinyl flooring)	인체노출
	개인 위생용품 (향수)	사용량

이번에 규정한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재에 대해서 워싱턴주 생태부는 2022년 6월 1일까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2023년 6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비재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0.365.050>

<https://fortress.wa.gov/ecy/publications/documents/2004019.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호주,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7종 추가

2020년 7월 8일,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법(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ICNA Act)에 의거한 기존 화학물질 목록(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 AICIS)에 7가지 화학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호주에서 AICIS에 등재된 화학물질만 수입 또는 제조 할 수 있으며,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어 수입 및 제조 전에 신고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물질들은 유해성 평가 후 5년이 경과된 물질로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분자식	CAS 번호
2-Propenoic acid, 2-methyl-, polymer with ethyl 2-propenoate, 2-hydroxyethyl 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OO-(1,1-dimethylpropyl)	특정할 수 없음	2417117-63-4

O - (2 - e t h y l h e x y l) carbonoperoxoate-initiated, comps. with 2-(dimethylamino)ethanol		
1,2,3-Propanetricarboxylic acid, 2-hydroxy-, nickel(2+) salt (1:1)	$C_6H_8O_7.Ni$	18721-51-2
2-Propenoic acid, 2-methyl-, 2-hydroxyethyl ester, polymer with butyl 2-propenoate, ethenylbenzene, methyl 2-methyl-2-propenoate and 2-propenoic acid, compd. with 2-(dimethylamino)ethanol	$(C_8H_8.C_7H_{12}O_2.C_6H_{10}O_3.C_5H_8O_2.C_3H_4O_2)_x.xC_4H_{11}NO$	72065-17-9
2-Propenoic acid, 2-methyl-, p o l y m e r with N-(1,1-dimethyl-3-oxobutyl)2-propenamid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C_9H_{15}NO_2.C_5H_8O_2.C_4H_6O_2)_x$	52238-01-4
Humic acids, potassium salts, polymers with acrylamide, 2-methyl-2-[(1-oxo-2-propen-1 -yl)amino]-1-propanesulfonic acid and 1-(4-morpholinyl)-2-propen-1-o ne, sodium salts	특정할 수 없음	1627852-91-8
2-Propenoic acid, polymer with alpha-[4-(ethenyl)oxy]butyl]-ome ga-hydroxypoly(oxy-1,2-ethaned iyl) and 2,5-furandione, potassium sodium salt	$(C_4H_2O_3.C_3H_4O_2.(C_2H_4O)_n.C_6H_{12}O_2)_x.xK.xNa$	1469871-11-1
Formaldehyde, polymer with 4-(1,1,3,3-tetramethyl)butylphen ol, methylstyrenated	특정할 수 없음	1243578-28-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news-and-notice/chemicals-added-inventory-5-years-after-issue-assessment-certificate>
(공공문)

https://www.nicnas.gov.au/_disabled20200701/chemical-inventory (AICS 검색할 수 있는 인벤토리
웹사이트)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일본 보조 배터리 시장동향

- 캠핑용 및 방재용 수요로 보조배터리 시장이 호조-
- 외국제 상품에 부족한 안전성, 신뢰성 문제 해결이 판매 확대의 키 -

□ 상품 기본정보

- 보조 배터리(8507.60.000) : 리튬, 이온 축전지
 - 재해 발생시나 캠핑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휴대용 전원이 해당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용 운반기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와 함께 캐스터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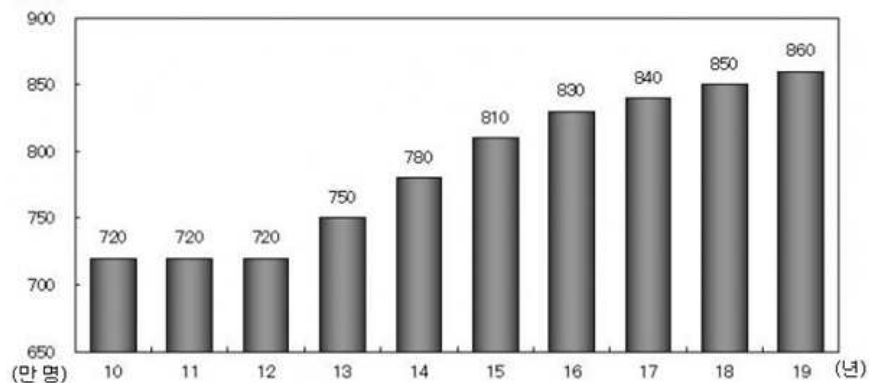
HS Code	범주
8507.60.000	리튬·이온축전지

자료 : HONDA 홈페이지

□ 일본 보조 배터리 시장 동향

- 아웃도어 시장의 확대와 함께 보조 배터리의 수요 증가
 - 보조 배터리(휴대용 전원)는 아웃도어·레저 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 특히 최근에 오토캠프(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숙박하는 여행)를 즐기는 사람들의 증가로 캠핑용품,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오토캠프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의 오토캠프 참가인구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860만 명으로 7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람이 물리는 장소를 피해 혼자 캠핑하는 솔로 캠퍼의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가 확대로 2020년도 시장은 성장할 전망이다.

오토캠프 참가 인구 추이



자료 : 일본오토캠프협회 '오토캠프백서 2020'

-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 의식이 향상에 따라 수요가 확대
 -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2016년의 구마모토지진, 2018년의 서일본 폭우 등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방재식품의 비축, 보조 전원의 확보 등 방재 대책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리서치회사인 후지경제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의 방재식품 시장규모를 195억 엔으로 예측.

□ 최근 3년 간 수입 규모(한국 포함) 및 동향

○ 일본 수입 시장, 미국제, 한국제 증가세

- 보조 배터리(휴대용 전원)을 포함한 리튬·이온축전지(HS Code 8507.60.000)의 2019년 전체 수입액은 14억 2,120만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약 55%를 중국 수입품이 차지함. 그 외에 미국,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수입액이 많음.

○ 대한수입액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70% 증가한 1억 9,616만 달러 수준이 수입되었음.

- 한국에서의 수입은 증가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19년은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3년 간 일본의 산업용 캐스터 국가별 수입 동향 (HS Code8507.60.000류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율 '19/'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세계	807.55	1085.83	1421.20	100	100	100	30.89
1	중국	457.08	667.69	781.01	56.6	61.49	54.95	16.97
2	미국	73.58	68.27	197.22	9.11	6.29	13.88	188.87
3	한국	90.94	115.47	196.16	11.26	10.63	13.8	69.88
4	싱가포르	71.97	131.13	139.48	8.91	12.08	9.81	6.37
5	대만	15.54	20.16	33.52	1.92	1.86	2.36	66.22
6	베트남	42.26	44.46	30.54	5.23	4.1	2.15	-31.31
7	말레이시아	33.06	17.48	16.71	4.09	1.61	1.18	-4.41
8	독일	7.15	6.12	7.81	0.89	0.56	0.55	27.7
9	인도네시아	4.24	4.03	4.39	0.53	0.37	0.31	8.83
10	폴란드	2.82	3.79	4.02	0.35	0.35	0.28	6.11

자료원: World Trade Atlas(2020.07.16)

□ 경쟁 동향

○ 유통제품 예

- 주로 캠핑용으로 디자인된 Kashima Shoji 사의 PowerArQ는 온라인쇼핑몰 RAKUTEN에서 6월에 1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함.
- Anker Japan은 통신사인 AU와 함께 방재목적으로 개발한 보조 배터리를 2020년 7월부터 AU샵(스마트폰 판매점)에서 판매 개시.
-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만큼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수요 증가에 응할 방침.

Rakuten 및 Amazon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상품

기업명/홈페이지	Kashima Shoji / https://sm-tap.com/lp/tcd048/l0810/
제품 설명	제품명 : PowerArQ 가격 : 59,7800엔 용량 : 500Wh -중국제, Rakuten, Amazon 등의 온라인쇼핑몰 및 요도바시 카메라 등의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판매.

이미지	
-----	---

기업명/홈페이지	Jackery Japan / https://www.jackery.jp/
제품 설명	제품명 : Jackery Portable 전원 700 가격 : 63,840 엔 용량 : 500Wh -미국기업 일본법인으로 2019년 3월에 Amazon Japan 출점했고, 9월에 일본법인 설립 -현재 Amazon, Rakuten, Yahoo Shopping에서 판매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JVC / https://www.jvc.com/jp/portable-power-supply/lineup/bn-rb10-c/
제품 설명	제품명 : BN-RB10 가격 : N/A 용량 : 1,002Wh -Jackery와 공동개발한 보조 배터리, 휴대용 솔라패널도 출시 예정. 2020년 7월 말에 판매.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TRA / https://cheero.net/
제품 설명	제품명 : cheero Energy Carry 가격 : 54,800엔 용량 : 500Wh -중국제 -현재 Amazon, Rakuten, Yahoo Shopping에서 판매

이미지	
-----	---

기업명/홈페이지	Suaoki / https://jp.suaoki.com/
제품 설명	제품명 : suaoki Portable 전원 G500 가격 : 59,880 엔 용량 : 500Wh -중국기업, 중국제 -현재 Amazon, Rakuten, Yahoo Shopping에서 판매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Anker / https://www.ankerjapan.com/
제품 설명	제품명 : Anker Power House Portable 전원 434Wh 가격 : 49,800 엔 용량 : 434Wh -현재 Amazon, Rakuten, Yahoo Shopping, 자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FCC / 홈페이지 없음
제품 설명	제품명 : Potaden 가격 : 47,017 엔 용량 : 462Wh - 일본메이커 제품, 3년 보증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Hitachi / http://www.hitachi.co.jp/
제품 설명	제품명 : Portable Power Source 가격 : 129,000 엔 용량 : 64000mAh - 일본제
이미지	

기업명/홈페이지	Lacita / https://lacitashop.com/
제품 설명	제품명 : Lacita Portable전원 가격 : 59,800 엔 용량 : 444Wh
이미지	

자료 : 기업 홈페이지, Rakuten 홈페이지 (소매가, '20.07.16현재)

□ 경쟁사 동향

- 해외 수입품이 대세
 - Jackery Japan나 Kashima shoji, Anker 등 자체 개발 및 디자인한 제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해외 제품이라 해도 일본제품보다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일본제품보다 약 50%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음.
 - 한편 일본 제조사나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A/S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음.

□ 바이어 인터뷰(각종 배터리, 축전지, 가전제품 유통사 H사)

- 소비자는 유튜브의 평가로 구매하는 경향
 - KOTRA오사카무역관은 일본의 보조 배터리 시장과 관련하여 판매상황 등 키포인트를 알아 보기 보조 배터리 유통상 H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Q. 배터리의 판매 상황?
A. 재해용이라기보다 아웃도어 용도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음. 특히 캠핑할 때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혼자 캠핑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Q. 일본제 보다 해외 제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는 건지요?
A. 유튜브들이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사용 후기를 남기는 영상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정보를 바

탕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음. 실제로 캠핑할 때 사용하면서 사용감이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일본제는 신뢰도는 높지만 비싸며 성능도 해외제품보다 그렇게 좋다는 의견은 없음. 브랜드 이미지와 일본제가 주는 신뢰도가 장점이라 생각함. Jackery 제품이 인기가 많음.

Q.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는?

A. 아웃도어용품 분야는 Snowline이나 Kovea가 일본에서도 조금은 인지되어 있으나 배터리 분야는 아직 브랜드력을 가진 제품은 없는 것 같다. 물론 PC용 배터리나 솔라 배터리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해외제품 중에서도 한국제품의 신뢰성은 높은 편임.

□ 유통구조

- 해당 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Amazon, Rakuten, Yahoo Shopping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가전제품 양판점(야마다전기, Bic Camera, Yodobashi Camera 등)에서도 일부 판매되고 있음.
- 인지도가 없는 제조사(수입품 포함) 제품은 전시회(Gift Show, Beauty Japan 등)참가를 통해 홍보/체험/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음.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 WTO협정 관세율은 이며 통관 시 소비세 10%가 부가됨.

HS Code	기본	WTO협정
8507.60.000	무관세	무관세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실행 관세율표 2020년 4월 1일판

- 수입 규제 :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으나 일본에서 판매할 시 '전기용품안전법(PSE법)'의 제한은 받음. 판매하기 전에 PSE마크(인증)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취득 가능함.

취득 가능 인증 기관

기관명	UR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http://www.ktc.re.kr/asia/japan.asp
한국산업기술시험원	https://customer.ktl.re.kr/scp/site/main/index001

□ 시사점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외출 자제로 인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일본에 유통되는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이 해외 제품이며 일부 제품은 디자인을 일본시장용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음. 수입품은 일본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으며, 중국, 미국, 한국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음.
- 최근 차박(車泊)의 인기에 힘입어 유튜버가 차량 안에서 식사, 숙박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필수 아이템으로써 보조 배터리를 소개하고 경우가 많음. 바이어 인터뷰에 따르면 유튜버가 사용하고 검증한 제품들이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나타남.
- 자연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용으로 사용 가능한 보조 배터리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며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에게 보증 기간을 늘려 판

매 촉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자료: 후지경제, 일본오토캠프협회, WTA, 재무성, 기업 홈페이지, Rakuten 홈페이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중국 탄산수 시장동향

- 건강 이미지를 내세운 '무설탕 0칼로리' 제품 인기 -
- 관련시장은 성장 중이나, 주도하는 브랜드 아직 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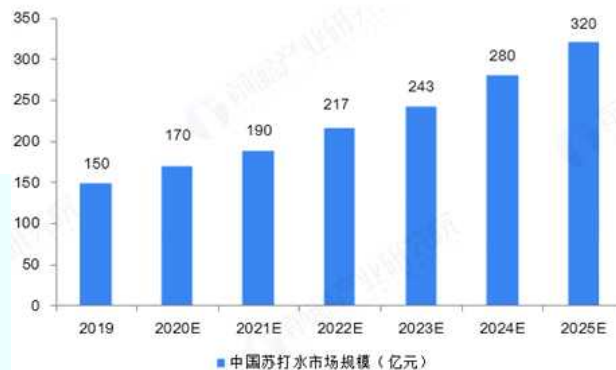
□ 상품명 및 HS Code

- HS CODE: 22011010 탄산수

□ 시장규모 및 동향

- 시장규모
 - 2019년 중국 탄산수 전체 시장규모는 약 150억 위안이며 2025년까지 3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2019-2025년 중국 탄산수 시장규모 예측
(단위: 억 위안, %)



자료: 前瞻网

○ 탄산수 종류

-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탄산수는 탄산수 음료를 가리킴.
- 탄산수는 천연탄산수 및 합성탄산수를 모두 포함하는 카테고리, 합성탄산수는 다시 기포가 있는 탄산수와 기포가 없는 탄산수로 나뉨.

탄산수 분류

탄산수 종류	성분	대표 제품	이미지
--------	----	-------	-----

천연탄산수	천연 NaHCO_3 함유	수다위안(舒达源) 천연 탄산수	
기포가 있는 탄산수	정제수+ CO_2 + NaHCO_3	와슨스 무설탕 탄산수	
기포가 없는 탄산수	정제수+ NaHCO_3	와하하(娃哈哈) 무설탕 무기포 탄산수	

자료: 前瞻网 및 청다오무역관 정리

- 천연탄산수 산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 천연 탄산수는 탄산수소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미량원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
 - 전세계에서 일본,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소수 국가에서 천연탄산수가 생산되며, 중국 일부 지역(쓰촨 러산(乐山), 헤이룽장)도 천연탄산수가 생산됨.
- '무설탕 0칼로리' 제품 인기
 - 중국 탄산수시장에서 위안치쥘린(元氣森林) 탄산수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수요를 잘 포착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위안치쥘린(元氣森林) 탄산수 제품은 '무설탕, 무지방, 0칼로리' 개념의 탄산수로 홍보되고 있으며, 설탕 대신 다른 첨가물을 통해 단맛을 구현해냈음. 이로 인해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살 찌까봐' 탄산음료를 섭취하지 못하는 소비자층에게 '착한 콜라'로 통하고 있음.

위안치쥘린(元氣森林) 탄산수 이미지



자료: 元氣森林

□ 주재국 수입동향

○최근 3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 국가/지역 수입동향

중국 (HS Code: 22011010 기준)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천 불, %)

순위	국가/지역명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19/'18)
-	총액	59320	67902	89400	31.7
1	프랑스	40840	46110	48635	5.5
2	뉴질랜드	2667	3080	21762	606.4
3	이탈리아	6066	7380	7703	4.4
4	피지	4534	5657	6356	12.4
5	일본	434	612	712	16.4
6	미국	664	923	650	-29.5
7	스페인	347	370	425	15
8	덴마크	202	255	352	38.1
9	말레이시아	77	185	275	48.9
10	캐나다	119	212	246	16.1

자료: KITA

○ 대한민국 수입액 추이

중국 (HS Code: 22011010 기준) 대 한국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불,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백만불)	367	886	442	147	151
증감률(%)	-128	141.4	-50	-66.8	2.8

자료: KITA

□ 경쟁동향

○ 시장 선두브랜드 아직 없음

- 최근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탄산수 브랜드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100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국내 브랜드로는 와하하(娃哈哈), 와슨스(屈臣氏), 명린(明仁), 위안치썬린(元氣森林), 베이터(倍特), 힘리온(活力恩) 등이 있음.
- 온라인에서는 이태리, 태국, 스페인의 탄산수 브랜드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탄산수 시장은 비교적 뒤늦게 발전한 것으로, 아직 탄산수 브랜드의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아 시장의 경쟁 양상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격면에서, 탄산수의 가격은 일반적인 생수보다 비싼 편이며 주로 4~8위안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음.

2020년 중국 탄산수 인기 브랜드 및 제품

순위	제품명	제품 이미지	가격
----	-----	--------	----

1	중국	와하하 (娃哈哈)		29.5위안 (350ml*12병)
2	중국	와슨스 (屈臣氏)		86위안 (330ml*24병)
3	중국	밍런 (明仁)		59.9위안 (330ml*24병)
4	중국	위안치썬린 (元氣森林)		65.9위안 (480ml*12병)
5	중국	베이터 (倍特)		85.9위안 (600ml*24병)
6	중국	뤄리언 (活力恩)		67.5위안 (500ml*15병)
7	태국	Chang (大象)		29.9위안 (325ml*5병)
8	스페인	Fontecelta (霏澈)		114위안 (330ml*6병)

자료: 京东

○ 유통구조

- 탄산수의 유통경로는 주로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전문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임.

□ 관세율

○ HS CODE: 22011010

- 한중FTA 적용세율:

관세(한중FTA)	5%
증치세	13%

- MFN 적용세율:

관세(MFN)	5%
증치세	13%

자료: 중국해관

□ 인증

○ 중국어 라벨

-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중국어 라벨에는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중국어 라벨은 보통 검역·통관 대행사를 통해 심사·등록함.

○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 등록

- 대중국 탄산수 제품 수출 시, 중국 검역·통관 대행사를 통해 중국해관에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 사전등록을 해야 함.

○ 검역증명서(위생증서)

- 중국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함. 탄산수 제품은 중국해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 가능.

□ 시사점

○ 치열한 시장경쟁

- 2019년 중국 맥주 선두업체인 칭다오맥주가 해조탄산수를 출시하고 탄산수 시장에 정식 진출했음. 맥주기업 외에, 생수 생산기업, 음료스 생산기업, 심지어 유통업체들까지 탄산수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에 집중

- 소비자들이 '무설탕, 무지방, 0칼로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건강을 강조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임.

○ 제품 외포장 중시

- 산동성 현지 식품 판매상 담당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시 빠른 시간내에 제품의 키워드를 이해하여 제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관련제품 개발 시 제품 포장에 건강에 좋은 제품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자료: 前瞻网, KITA, 중국해관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미국 가축 사료 시장 동향

- 美, 닭고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가금류(Poultry) 사료 분야 빠르게 성장 중 -
- 미국으로 가축 사료 수출 시 FDA 규제에 유의해야 할 것 -

□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 가축 사료(Animal feed)
- HS Code: 2309.90
 - HS Code 제2309호는 동물 사료 조제품(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전반을 포함
 - 제2309호는 크게 2309.10과 2309.90의 두 가지 하위 품목으로 나뉘는데, 2309.10에는 개와 고양이 용 사료(소매용)가 포함되며 2309.90에는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동물 및 가축용 사료가 해당
 - 2309.90에서 의미하는 동물 및 가축의 종류로는 가금류(Poultry), 유우(Dairy cattle), 육우(Beef cattle), 기타 축우(Other cattle), 돼지(Swine), 기타 가축(Other livestock)뿐만 아니라 새(Bird)나 기타 반려동물(Other pet) 등을 들 수 있음.

□ 시장 규모 및 동향

- 시장 규모
 -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의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 보고서(Farm Animal Feed Production in the US, 2020년 3월 발간)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가축 사료 생산시장 규모는 약 326억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3.4%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 2019년부터 향후 5년간은 연평균 1.1%의 낮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약 343억 6900만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됨.

2019년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 주요 지표(매출, 연평균 성장률, 이익, 임금 규모, 사업체 수)
(단위: US\$ 십억,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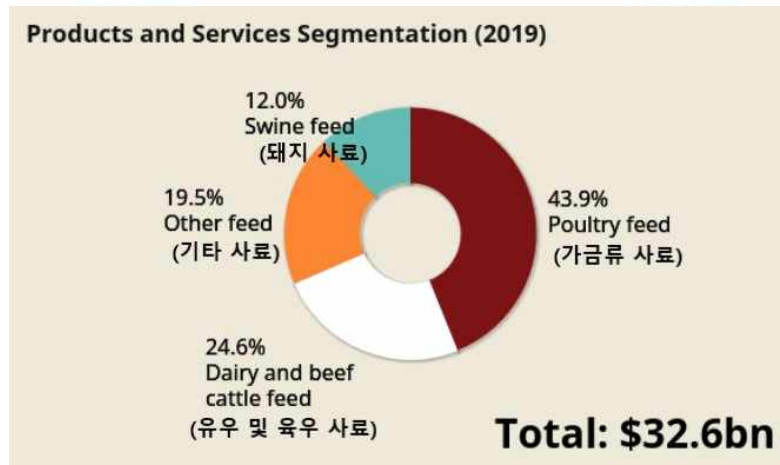


자료: IBIS World(Farm Animal Feed Production in the US, 2020년 3월 발간)

- 시장 동향

- IBIS World에 따르면, 가축 사료는 주로 콩(Soybean), 옥수수(Corn), 아마씨(Linseed), 해바라기(Sunflower) 등을 으갠 가루나 밀기울(Wheat bran), 귀리 껍질(Oat hulls), 알팔파(Alfalfa) 가루나 알갱이 등을 원료로 함.
- 가축 사료의 성분 구성은 최종 섭취 동물에 따라 상이하며, 가축은 그 종에 따라 매우 일정한 식단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특히 가축 사료의 성분은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IBIS World에서는 미국의 가축 사료 생산시장을 세부적으로 가금류 사료(Poultry feed), 유우 및 육우 사료(Dairy and beef cattle feed), 돼지 사료(Swine feed), 기타 가축 사료 등의 품목으로 구분함.

2019년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의 품목별 비중



자료: IBIS World(Farm Animal Feed Production in the US, 2020년 3월 발간)

- 이 중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 사료가 전체 시장의 약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유를 생산하는 유우(Dairy cattle) 및 소고기를 제공하는 육우(Beef cattle) 사료가 그다음으로 큰 약 25%를 점유함. 돼지 사료의 경우 12%를, 그 외의 기타 가축 사료가 약 19%를 차지함.
- 미국 가축 사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금류 사료 분야는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미국 식품 소비자들 사이에서 닭고기나 칠면조 고기가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Red meat)의 대체재로서 많은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유우 및 육우 사료 분야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로 붉은 고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해당 사료 분야의 매출 역시 다소 하락세를 보임. 그러나 미국은 대표적인 육류 및 유제품 소비 강국인 만큼, 유우 및 육우 사료 분야 또한 꾸준한 시장 점유율 유지가 예상됨.
- 가금류, 유우 및 육우, 돼지 사료 이외에도 염소나 양 등의 다양한 가축용 사료가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반 사료 제품뿐만 아니라 가축용 영양 보조제(Supplements), 농축 사료(Concentrates), 배합 사료(Premixes) 등이 기타 사료 분야에 속함.

□ 수입 동향

- 미국의 가축 사료 수입 동향
 - 2019년 미국의 가축 사료 수입액은 약 6억12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6%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프랑스·말레이시아로, 이 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 시장의 절반을 차지함.
 - 1위 수입국인 캐나다로부터의 2019년 가축 사료 수입액은 약 1억7783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임.
 - 2·3위 수입국인 프랑스와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7630만 달러와 5741만 달러로 집계됨.

- 2019년에는 특히 독일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액 급증이 눈에 띈.

최근 3년간 미국의 가축 사료 수입 동향(HS Code 2309.9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연도별 수입액			비중			증감률 '19/'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	전체	578.51	563.08	612.42	100.00	100.00	100.00	8.76
1	캐나다	164.43	170.02	177.83	28.42	30.19	29.04	4.59
2	프랑스	80.92	69.04	76.30	13.99	12.26	12.46	10.53
3	말레이시아	77.77	57.60	57.41	13.44	10.23	9.37	-0.33
4	독일	38.30	34.39	51.47	6.62	6.11	8.40	49.68
5	중국	49.49	52.48	45.52	8.55	9.32	7.43	-13.27
6	인도	25.01	27.01	24.20	4.32	4.80	3.95	-10.40
7	영국	24.31	37.31	22.44	4.20	6.63	3.66	-39.85
8	벨기에	15.78	13.70	17.52	2.73	2.43	2.86	27.88
9	인도네시아	0.08	4.30	15.74	0.01	0.76	2.57	266.14
10	아르헨티나	0.15	0.27	15.53	0.03	0.05	2.54	5615.89
35	한국	0.31	0.55	0.49	0.05	0.10	0.08	-12.37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07.17.)

○ 대한 수입 규모 및 동향

- 미국의 한국산 가축 사료 수입액은 2019년 기준 약 49만 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35위를 기록함.
- 상위 수입국들로부터의 수입액 및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산 수입액 및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며 전년 대비 수입액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한국산 수입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경쟁 동향

○ 경쟁 현황

-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은 집중도가 낮은 편으로, 상위 4개의 주요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해당 시장 내 기업들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집중도 하락을 겪은 바 있음. 향후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은 주요 선두 기업을 필두로 인수나 합병을 통해 시장 수익성을 유지해나가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고 IBIS World는 전망함.

○ 주요 경쟁 기업

-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을 주도하는 4대 경쟁 기업으로는 Purina Mills LLC, Cargill Inc., CHS Inc.,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를 꼽을 수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11%를 차지한 Purina Mills가 선두 기업으로 분석되며, 그다음으로는 Cargill이 약 8%의 점유율로 경쟁 구도에서 2위를 차지함.
- 이외에는 CHS가 약 4%를,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가 약 3%를 점유함.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의 주요 경쟁 기업 및 시장점유율



자료: IBIS World(Farm Animal Feed Production in the US, 2020년 3월 발간)

□ 주요 유통채널

- 가축 사료는 대부분 각 가축 사육업체로 유통
 - 미국 가축 사료 생산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채널은 단연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가금류 사육업체(Poultry producers) 즉 양계장으로, 전체 유통의 42%를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양, 염소, 말 등을 사육하는 기타 가축 사육업체에 19%, 유우 사육업체에 15%, 돼지 사육업체에 11%, 육우 사육업체에 9%가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됨.

□ 관세율 및 수입규제

- 관세율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HS Code 2309.90의 경우 하위분류에 따라 일반 세율은 무관세부터 7.5%까지이나, 한국산 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혜택으로 무관세가 적용됨.
- 수입 및 통관 제도
 -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납품업체에서 받은 원자재 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판매·유통되는 모든 식품·의료기기·의약품·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식약청(이하 FDA)에서 관할 및 규제함.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용 먹거리(Pet food)와 같은 동물용 식품,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 사료(Animal feed)도 모두 포함됨.
 - 따라서 FDA는 미국에서 판매·유통되는 동물 사료에 또한 일반 식품과 동일한 생산 관리 기준, 라벨링 기준 및 수입 절차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 역시 일반 식품 생산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기지 등록이나 원료·성분·색소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동물 사료는 반드시 ‘승인된 식품 첨가물(Approved food additives)’ 및 ‘안전한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해당 사료 제품에 육골분(Meat and bone meal) 등 동식물에서 유래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미국 농무부(이하 USDA)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주의가 필요함.
 - 동물 사료에 관한 세부 규정 등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FDA 웹사이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동물용 식품 및 사료 전반: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
 - 동물 사료의 안전성: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safety-health/safe-feed>
 - 동물 사료의 수입: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import-exports/importing-animal-food>

□ 시사점

- 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美 가축 사료 시장은 전반적인 성장 침체 겪는 중
 - 지난 5년간 미국의 가축 사료 시장은 콩이나 옥수수 등 주요 원료의 공급 과다로 인해 사료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겪어 왔다고 IBIS World는 분석함.

- 미국은 세계적인 육류 소비 대국이지만,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와 같은 붉은 육류(Red meat) 소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또한, 콩·오트밀 등의 곡류나 아몬드·캐슈 등의 견과류, 코코넛과 같은 기타 식물 기반의 Dairy-free 식품들이 등장하며 ‘유제품 대체 식품 시장’을 새로이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며 성장 중임.
- 위와 같은 현상은 특히 육우 및 유우 수요에뿐만 아니라 육우 및 유우용 사료 시장의 수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들, 특히 급속도로 발전 중인 국가들에서 중산층 소비자의 위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고기류에 대한 전 세계의 수요 성장을 이끌고 있음.
- 이에 힘입어 미국 가축 사육업계에서도 가축 사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축 사료 시장 또한 향후 5년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 IBIS World는 예측함.

○ 업계 참고사항

- 현재로서는 수입하는 물량보다 수출하는 물량이 훨씬 많은 미국 가축 사료 업계는 사실상 타 시장 분야와 비교해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장임. IBIS World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 가축 사료 전체 수요 중 수입이 차지한 비율은 2.2%에 그친 바 있음.
- 그러나 낮은 인건비를 통해 확보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수입산 가축 사료의 가장 큰 강점이기때문에, 미국의 가축 사료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
- 북미 국가들 간 무역 협정으로 인해 캐나다로부터의 가축 사료 수입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인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관련 업계의 우리 기업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겠음.
- 로스앤젤레스 현지 FDA 컨설팅 업계에 종사하는 K 전문가에 따르면, 가축 사료 또한 반려동물용 사료와 마찬가지로 FDA가 관할하며 생산기지 등록, 사전 신고뿐만 아니라 첨가물·안전성·라벨링 등에 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 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함. 따라서 가축 사료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각종 FDA 규제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 IBIS World, Global Trade Atla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법령정보포털, 미국 식약청(FD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중국, 민감성 피부 화장품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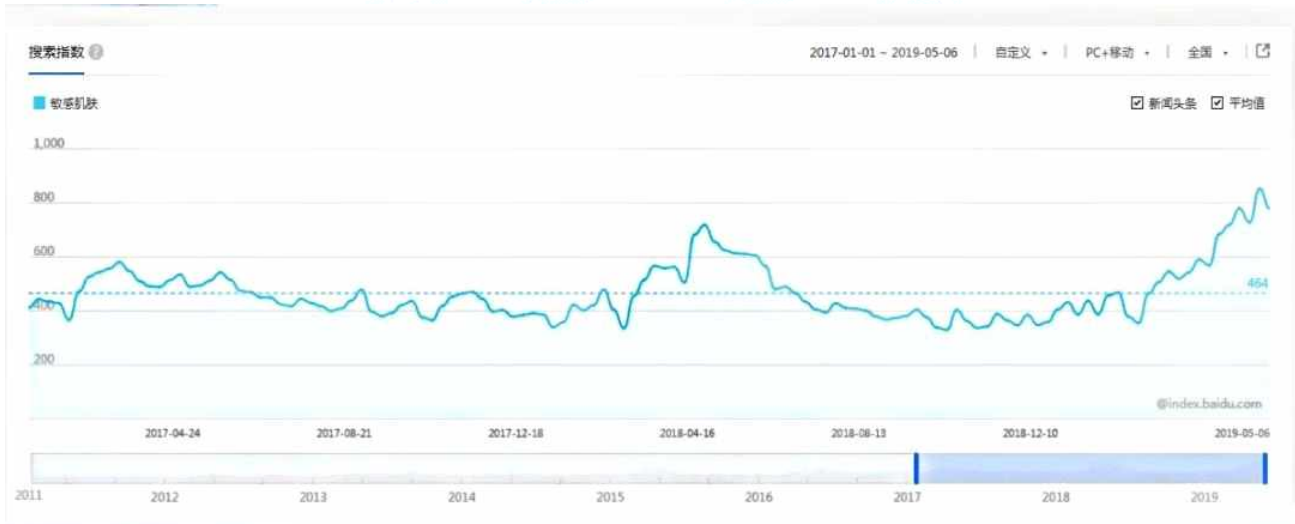
- 민감부분 세분화해 제품 개발하고 소비자 피드백 반영해야 -

민감성 피부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 외부 환경, 자극적인 화장품 사용,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청결 또는 잘못된 세정 습관 등이 있다. 특히 사람들의 일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오염된 공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민감성 피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한 피부관리로 인한 부작용 및 호르몬 함유 화장품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와 그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검색어 변화로 본 민감성 피부 화장품 수요 증가

중국의 피부학 저널인 '중국 민감성 피부 클리닉 전문가 그룹(中国敏感性皮肤诊治专家共识)'은 중국 여성의 약 36%가 민감성 피부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샤오홍슈(小红书, 소셜 콘텐츠 플랫폼)와 웨이보(微博, 중국 최대 블로그)에서 '민감성 피부' 관련 검색 횟수는 월간 200만 건이 넘었고 바이두(百度,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의 검색어 수는 3210건에 달하는 등 민감성 피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바이두 지수-민감피부지수(百度指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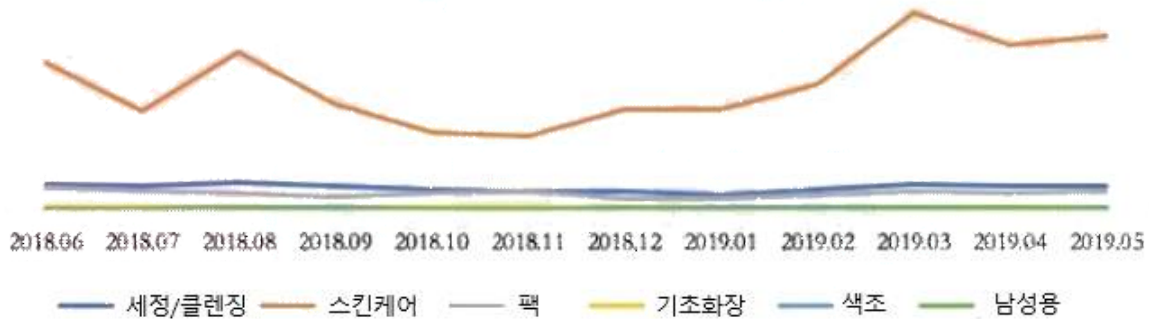
민감성 피부 관련 제품 종류 및 월별 판매액



자료: Measure China

민감성 피부 제품군을 클렌징,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페이스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 남성 화장품 등의 종류로 나눠 각각의 판매액을 비교 분석한 Measure China 자료에 따르면 기초 화장품(토너,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스킨케어 세트)의 판매액이 다른 제품군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클렌징 제품과 마스크팩 등에도 민감성 피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6~2019.5 화장품 품목별 민감성 화장품 판매액 추세



출처 : MeasureChina

그 외에도 타오바오(淘宝)와 텐마오(天猫)와 같은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기초화장품 판매 규모(2018년 6월~2019년 5월 기준)는 총 221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그중 민감성 피부 관련제품 판매액은 2억 7000만 위안에 그쳐 민감성 피부 관련 분야에 큰 발전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Mcaure China는 분석했다.

아울러 민감성 피부는 계절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특히 봄과 여름에 과민성 피부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봄·여름철(3~9월) 민감성 피부 제품 판매액이 가을·겨울철(10월~다음 해 2월)의 판매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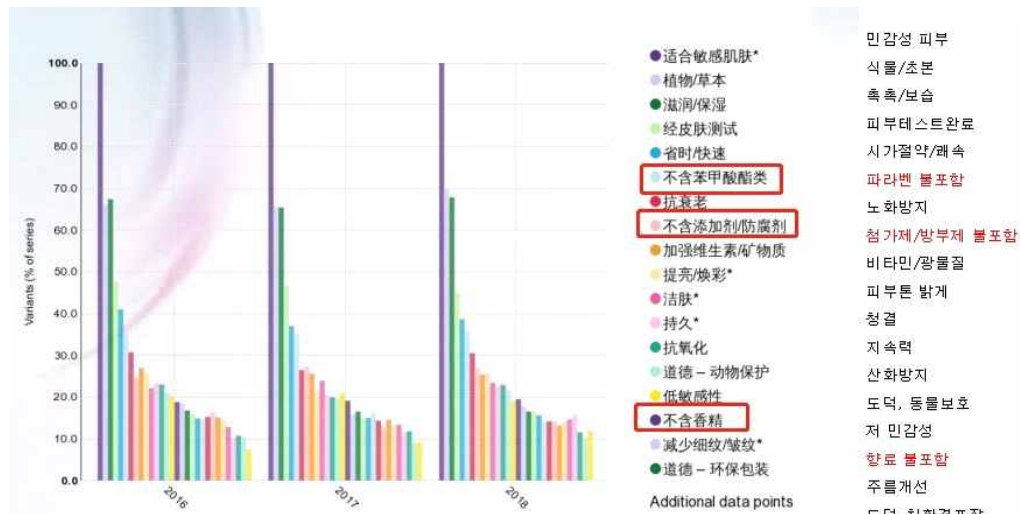
현재 중국 내 민감성 피부제품 시장점유율은 비교적 낮으나 중국 소비자들이 점차 피부관리에 관심을 갖고 화장품의 성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민감피부 제품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유형별 기초화장품 판매액 연간 성장률



자료: Measure China

스킨케어 제품 중 '민감성 피부 전용' 문구를 사용해 홍보한 제품은 2016년 7.31%에서 2019년 13.24%로 증가했고 무방부제 제품은 30%를 차지했다. 세라마이드·펩타이드·적설초·감초뿌리 추출물 등의 성분을 강조하고 순수천연물 추출, 무첨가 등이 소비자 제품 선택의 관건이 되기도 했다.



자료: Measure China

민감성 피부 화장품 동향

2018년 6월~2019년 5월 Measure Commerce 통계에 따르면 중국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 브랜드의 경우 판매 규모 상위 10개사 중 5개사가 중국 현지 브랜드이며, 상위 10개사의 매출이 총 매출의 70%를 차지했다.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제품군의 평균단가는 약 200위안 미만이며 아직 제품 구성이 다양하지 않아 발전할 여지가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중국 내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 브랜드 상위 10개사
(단위: 위안)

브랜드	국가	제품수	판매액지수	평균단가
Winona	CN	7283	260.3	115
Laroche Posay	FR	4321	46.6	175
Avene	FR	10067	40.8	120
Orien	JP	5945	38.1	158
Umoua	CN	33	32.3	127
Dr.Yu	CN	732	26	175
REALLOE	CN	542	29.4	109
Cetaphil	CA	576	16.9	107
Muji	JP	5407	11.1	69
HERBAL.SKINCARE ANCESTRE	CN	12	10.3	97

자료: Measure China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 제품의 주요 기능은 얼굴 피부관리를 위주로 눈과 여드름, 목 피부관리용 등으로 나뉜다. 과민성 피부개선, 보습, 특수관리, 리페어(피부회복), 진정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조합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 식물추출물 사용여부, 친환경성, 보습, 리페어 기능 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단위: 위안)

순위	기능	제품수	판매액지수	평균단가
1	보습	123877	584.4	124
2	리페어	36533	445.8	121
3	진정	62330	190.5	145
4	피부활력	46946	177.2	136
5	홍조	36034	69.2	141
6	과민 방지	31474	64.6	135
7	청결	7932	38.3	151
8	피부손상복구	15479	36.1	158
9	산화방지	5295	28	130
10	탄력	16721	27.6	141

자료: Measure China

중국 민감성 피부용 스킨케어 10대 브랜드(온라인 플랫폼 기준)

브랜드	이미지	제품명	기능
东医七味 DOEQUIE (광저우)		카모마일 세트	수분보충, 보습, 자외선차단, 리페어, 지성피부 관리
萱姿 EXELR (광저우)		카모마일 스킨케어 세트	수분보충, 보습, 피부진정
诗婷露雅 STEROREA (선전)		피부진정 보습 세트	보습, 진정, 심층 청결
柏氏 PAT'S (홍콩)		피부진정 리페어 세트	보습, 진정, 탄력강화
奥洛菲 OLEVA (항저우, 프랑스)		세라마이드 진정 리페어 로션	보습, 진정, 리페어

澳赞 O'admire (호주)		로미오 토너	보습, 탄력강화
艾诗可因 A-skin (상하이)		특급 수분크림	수분보충, 보습
圣蜜莱雅 sunsshenn (광저우)		민감피부 세트	수분보충, 브라이트닝
温碧泉 Wetherm (광저우)		소프트닝 세트	수분보충, 지성피부 관리
梵洁诗 fanjeis (상하이)		카모마일젤	보습

자료: phb123순위(123排行榜)

민감성 피부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출

민감성 피부 제품의 판매는 고객 체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초기 시장진출 단계에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도록 소비자의 구전(입소문)을 유도해 충분히 브랜드 인지도를 쌓은 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 소비자 외에도 미용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온라인 피부관리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 체험의 종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통 유통구조

A	생산업체→자체 유통채널(지역판매, 직영매장, 브랜드숍)
B	생산업체→지역판매대리/도매시장→백화점 매장·화장품매장
C	외국업체→중국 운영업체/중국 총대리→지역판매대리/도매시장→백화점 매장/화장품매장

특히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빠른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생산·유통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유통 채널로 이용하고 있어 이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고객의 소비행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과 제품의 공급관리, 신제품 연구개발, 가격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경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유통구조 - 주요 온라인 유통플랫폼
타오바오 淘宝(www.taobao.com), 텐마오 天猫(www.tmall.com), 징둥 京东(www.jd.com), 아마존 亚马逊(www.amazon.com), 웨이상 微商(위챗플랫폼)

민감성 피부 화장품 수입 관세율 및 수입 등록서류

민감성 피부 화장품을 기반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은 중국 내 화장품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들은 아래와 같이 숙지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권한다.

민감피부용 스킨케어제품(HS CODE: 330499)
- 수입화장품 통상세율: 150%, 수입우대세율:1%, 한중FTA협정세율 5.2% - 한국 제품 최종 적용세율: 1%

화장품 수입 등록(비안등록) 필요서류
1) 비 특수화장품 수입 행정허가 신고서 2) 제품 중문명 및 명명 근거 3) 제품 성분 4) 제품 품질안전 관리요구 5) 제품 원 포장(라벨, 제품설명서),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한 포장은 별도 포장설계서 제출(라벨, 제품설명서) 6)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www.nmpa.gov.cn)에서 지정한 허가검사기관에서 제출한 검사보고 및 관련 서류 7) 제품에 존재하는 안전성 리스크 물질과 관련된 안전성 평가 서류 8) 기 비안등록을 한 중국 내 신고업체의 위탁서 사본 및 공식 인장이 찍힌 신고업체 영업집조 사본 9)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와 원료의 공급원이 BSE 지역의 고위험 물질 금지 및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약속의 서한 10) 제품이 생산 국가 (지역) 또는 원산지 국가 (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11) 행정 허가에 도움되는 기타 자료 12) 생산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간략도면 13) 제품 기술 요구 사항의 텍스트 및 파일

참고: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서(비안증빙서)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凭证

国妆备进字J20121710

英国特洛菲特男士理容公司:

根据《化妆品卫生监督条例》及其实施细则有关规定,对你单位的以下产品予以备案,备案有效期至2020年8月28日。

产品名称	中文	特洛菲特 特拉法尔加 剃须膏		
	英文	Truefitt & Hill Trafalgar Shaving Cream		
生产企业	中文	英国特洛菲特男士理容公司		
	英文	Truefitt&Hill(Gentlemen's Grooming)Ltd		
生产国(地区)	英国	地址	71 St. JAMES STREET, SW1A 1PH, LONDON, UK	
在华申报责任单位	名称	北京金合达国际贸易有限公司		
	地址	北京市朝阳区建国门外大街2号地下一层B47号		
备注	2014年05月09日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批准核发备案凭证, 2012年3月14日签发的原备案凭证作废。			

请于批件有效期届满4个月前提出延续申请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未组织对本产品卫生安全性进行技术审核,本备案凭证不作为对产品卫生安全质量的认可。



자료: 北京财智时代(www.czsd.com.cn)

한국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현재 중국 내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1.22%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중국 소비자들은 유럽 및 미국 화장품보다는 비교적 중국인 피부에 더 잘 맞는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유럽 및 미국 브랜드 수는 많지 않고 제품의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제품들은 민감성 제품으로 따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개된 데이터로 봐도 한국의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제품은 줄곧 중국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 바이두의 '한국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검색결과는 403만 건에 달하는 반면 '일본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 검색결과는 27만 4000건에 그쳤다.



자료: 바이두(2020년 5월 11일 검색 결과)

또한 중국 유명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텐마오(天猫TMALL)에도 38개에 달하는 민감성 피부 제품 관련 한국 중소형 브랜드가 입주해 있다.

텐마오 ‘한국 민감피부 화장품’ 검색 결과



자료: 텐마오(天猫)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전략으로는 얼굴, 눈, 목, 손, 팔 등 민감한 부위들을 각각의 타깃점으로 세분화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초기에는 소비자 체험위주의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드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협력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중국 유통 구조에 부합하는 협력프로세스를 확정하고 효과적인 가격정책을 책정하는 등 파트너와의 이익분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민감성 피부 관련 시장에 처음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각 지역의 미용박람회에 참가해 지역별 기후, 문화, 선호도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을 추천한다. 지역별 유망 미용박람회로는 광저우 [국제미용박람회](#), 상하이 국제미용박람회, 베이징 국제미용박람회, 정저우 국제미용박람회, 하얼빈 국제미용박람회, 지난 미용박람회, 우한 미용박람회, 충칭 미용박람회, 칭다오 미용박람회, 타이위안 미용박람회, 신장 미용박람회, 쿤밍 미용박람회, 청두 국제미용박람회 등이 있다.

자료: 산업정보망(产业信息网), 핀관망(品观网), 순위망(排行榜), 징둥(京东), 소호(搜狐), 텐마오(天猫), KOTRA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스위스 마스크 시장, CE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

- 대규모 정부조달, 수입 정상화로 수급 안정 및 가격 하락 -
-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2차 감염 확대로 계속되는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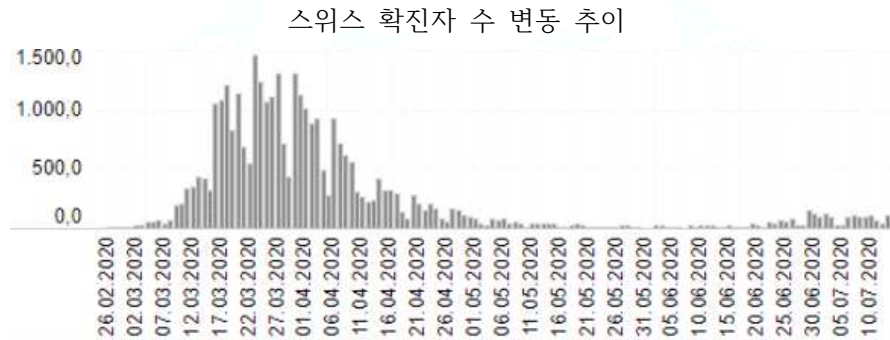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련 방호용품 및 의료기기 병목 현상이 일어났으나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 추세와 물품 수급여건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품목이라 볼 수 있는 마스크와 관련, 스위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 확진자 동향

스위스에는 2월 25일 첫 공식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연방정부는 3월 17일부터 생필품(식품, 의약품 등) 및 서비스(금융, 통신 등)를 제외한 소매점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락다운을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추세가 완화된에 따라 4월 27일부터 6월 19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락다운을 해제하여 7월 현재 규제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에 준할 정도가 되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3월 23일 1,530명으로

고점을 찍은 후 6월 초 0~50명 수준까지 내려갔으나 7월 현재 다시 100명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확진자 수의 재증가, 락다운의 해제, 국경 간 이동 통제* 해제 등을 감안하여 일각에서는 2차 감염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6.15일부로 쾅겐 가입국 국민 및 체류증 소지자 대상 입국제한 및 국경통제 해제. 현재 비 쾅겐지역의 입국제한 단계적 해제 중



자료: 스위스 연방정부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 시장과 7월 현재 마스크 시장 동향

코로나 19 발생 초기까지 스위스는 전적으로 마스크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대해 대중이 큰 신뢰를 보이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초기에는 수요에 비해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하여 약국 물량이 동나기도 했고, 온라인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인상*된 마스크들이 유통되기도 했다. 이후 민간 업체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현지 마스크 수급현황과 가격대는 정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기본 방역제품이 Migros, Coop과 같은 슈퍼마켓 체인, 기차역 마다 배치된 자판기 등 일반 유통망을 통해서도 공급되기 시작했다(기존은 약국 중심). 또한, 연방정부와 취리히 칸톤 지방정부의 협력 하 중국산 마스크 생산기기가 수입되어 스위스 내 필터 마스크 생산***이 가능해졌다.

* 현지 언론사 Swissinfo(4월 2일) : 수술용 마스크 1박스(50개입) 가격 CHF 90

** 아래 “유통구조” 참고

*** 아래 “현지 경쟁” 참고

코로나19 상황 초기, 스위스는 마스크를 포함한 전 방호물품에 대해 국방부 산하 군약국 단일 구매체제를 시도했으나 상황 완화, 조달 품목 수와 물량이 과다하여 다시 개별 구매 체제로 회귀했다. 마스크와 관련 정부는 마스크 5억 5천 장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을 통해 2천 5억 장*을 구매한 후 조달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5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보건시설(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용 마스크만 40일치 비축하여 조달 목표를 달성했고,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어 민간을 통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국방부 조달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현지 마스크 추가 공급은 시장 주도 하에 이뤄질 전망이다.

* 7.6일 현지언론사 20 Minute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마스크 구매 규모는 3억 장 이상, 현재 비축 2억 장 이상

7월 현재 수요 동향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스위스의 6월 1개월 마스크 소비규모는 약 1.5억 장에 달했다. 일일 마스크 사용량은 약 350만개이며, 전체 수요의 절반가량인 1.5~2백만개는 전문보건 분야에서 발생되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외 입장은 코로나 19 초기*에 비해 착용 확대 권장 및 의무화로 전환되는 중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대중교통 사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6.6일부), 각 칸톤 지방정부의 지역 특화 규제**가 마스크 수요의 지속 및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3월 前연방 보건국 전염병관리부장 다니엘 코치(Daniel Koch) : “마스크는 오직 환자가 착용했을 때에

만 효과가 있다(Eine Maske nütze nur, wenn jemand krank ist)”

** 예 : 칸톤 보(Vaud) : 쇼핑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식당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등

스위스 7월 마스크 관련 기사

내용	언론사·기관 / 링크
칸톤 쥐라(Jura) 및 보(Vaud), 쇼핑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The local / https://www.thelocal.ch/20200703/masks-to-become-mandatory-in-shops-in-two-swiss-cantons
스위스 연방정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스위스 연방정부 /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 ion/media-releases.msg-id-79711.html
연방정부 감염병 전문가 Christian Garzoni,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	The local / https://www.thelocal.ch/20200713/masks-must-be-worn-in-air-conditioned-offices-swiss-experts-say
칸톤 루체른(Luzern) 및 쥐라(Jura), 직업학교 및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검토 중	SRF / https://www.srf.ch/news/schweiz/luzern-und-jura-jetzt-kommt-die-maskenpflicht-fuer-gymnastik-und-berufsschueler
칸톤 티치노(Ticino), 식당 및 바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Central Plus / https://www.zentralplus.ch/ti-maskenpflicht-fuer-r-gastro-personal-1845259/

자료: 각 언론사 및 기관

수입동향

코로나19의 시기적 특성상 2020년 상반기 월별 통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가 포함된 기타 섬유제품(HS code 630790) 수입동향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2월 ~ 2020년 5월 스위스 월별 마스크 수입 동향(HS code 630790)
(단위: 달러)

	국가명	규모변화					
		2019.12.	2020.1.	2020.2.	2020.3.	2020.4.	2020.5.
	전체	12,294,334	13,822,664	14,423,352	29,552,326	198,126,181	282,343,783
1	중국	3,911,328	4,380,952	4,506,810	15,301,679	176,205,288	255,766,555
2	독일	3,512,198	4,388,789	3,812,793	5,046,109	7,063,571	8,286,708
3	홍콩	29,426	8,441	16,947	969,537	3,889,455	4,102,527
4	이탈리아	430,399	341,678	557,517	496,845	805,334	1,737,695
5	베트남	493,168	706,338	578,490	683,805	1,016,950	1,449,888
6	프랑스	449,270	583,121	434,402	471,533	418,226	1,126,285
7	오스트리아	304,341	270,198	246,847	423,704	898,686	854,607
8	미국	183,542	314,578	463,921	439,960	633,305	811,368
9	네덜란드	115,539	138,532	189,663	143,222	1,067,252	772,259
10	영국	180,852	183,036	246,253	564,423	1,083,005	708,505
24	대한민국	21,526	13,058	12,060	485,368	55,094	153,585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에는 마스크 외에도 기타 섬유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에는 수입규모가 전월 대비 약 6배 가량 증가해, 마스크 대량 수입을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20년 2월과 발생 이후 5월을 비교하면 마스크 수입규모는 약 20배 증가하였다. 1월까지 對중국 및 독일 수입규모는 유사했으나 3월부터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위스 연방 보건국은 현지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7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위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스위스의 對한국 수입은 3월 약 49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4월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5월 3배 가량 증가했다.

유통구조

코로나19 상황 초기, 스위스는 진단키트를 포함한 전 방호물품에 대한 국방부 산하 군약국 단일 구매체제를 실행하였으나 상황 완화, 조달 품목 수와 물량이 과다하여 다시 개별 구매 체제로 회귀하였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3월 17일~ 6월 18일)에는 국방부(Swiss Armed Forces, Defence)의 의료 부서* 산하 군약국**에서 코로나 19관련 진단키트 및 방호물품 일괄 구매(연방정부, 공립병원, 지자체 수요 통합)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방부의 마스크 구매 규모는 2.5~3억 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의료 부서(Sanitaet) : 군의 전반적인 의료 총괄하며,보건분야의 국가비상사태(전염병 등) 처리 담당
- * 군약국(Armeeapotheke) : 군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물류전문 기관. 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조달, 생산, 보관, 납품, 유지보수 역할

현지에서 가장 많이 마스크 수요가 발생하는 곳은 병원, 클리닉과 같은 헬스케어 분야이다(7월 마스크 시장동향 참고).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나 주립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병원 및 지역병원 등은 수입업체 및 유통사를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현지 진출 시 의료기관 직 공급보다 수입유통사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 편이다.

현지 마스크 판매 유통사 리스트

업체이름(홈페이지)	비고	사진(CHF/개수)
Migros (www.migros.ch)	현지 최대 유통망	 (19.70/20)
Coop (www.coop.ch)	현지 최대 유통망	 (17.45/50)
Denner (www.denner.ch)	Migros 계열사(대형 유통망)	 (24.90/50)
Aldi (www.aldi-suisse.ch)	독일 계열 대형 유통망	 (19.90/50)
Lidl (www.lidl.ch)	독일 계열 대형 유통망	

Galaxus (www.galaxus.ch)	현지 최대 온라인 유통망	(19.90/50) 
Brack.ch (www.brack.ch)	현지 2위 온라인 유통망	(34.90/50) 
Weita AG (www.weita.ch)	현지 위생용품 온라인 매장	(29.00/50) 
Rallopack AG (www.rallopack.ch)	현지 위생용품 온라인 매장	(12.20/50) 
Artlux Swiss Safety AG (www.artlux.ch)	현지 위생용품 온라인 매장	(38.90/50) 
		(33.90/50)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현지 경쟁

마스크 수급 현황 개선(수입 정상화, 국내 생산 시작, 해외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현지 언론 보도 내역*이나 현지 유통사의 반응도 이와 일치한다. 현지 유통사는 3, 4월에 비해 마스크 수요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급 오퍼는 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것은 필터마스크가 아닌 수술용·덴탈 마스크이며 고품질 및 필터 마스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현지 주요 유통채널 중 대표적인 저가 채널인 Denner와 Lidl은 수술용 마스크는 1박스(50개입)를 각 CHF 24.90, CHF 19.90에 판매하는 중이다. 필터마스크의 경우, 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에게 접촉을 시도하던 6월 중순 당시, 약 1.2~1.4 유로(EUR)로 수입이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SRF 보도, 중국산 마스크 판매가격 감소

7월 16일에는 연방정부에서 확보된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대로 이행될 경우 수술용 및 덴탈 마스크로 현지 시장 진출하는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이외 현지 생산과 관련, 연방정부와 취리히 칸톤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국에서 조달한 마스크 생산기기 3대를 확보한 Flawa Consumer GmbH의 마스크 생산이 곧 본격화될 예정이다. 동 기업은 최근 독일의 검증 기관 TÜV Nord에서 코로나19 방역 기준 테스트 통과하였으므로 곧 인증서를 획득하고 필터 마스크 정식 생산을 시작할 계획(일일 약 85,000개)이라고 밝혔다.

상기 내용 종합 시 스위스에 마스크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증 및 관세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스위스 의료기기의 경우 EU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희망할 경우 CE 인증이 필수이다. 관세의 경우 한국은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관세이다. EU 의료 기기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7R0745-20170505>

참고로 연방정부는 의료 및 기타 보호/소모품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관세 부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병원과 기타 의료기관 직원과 환자들이 필요한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실행됐다.

시사점

스위스는 코로나19 초기 부족한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방호물품 구매처를 국방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대량 수입했다. 연방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판단하여 5월 22일 부 국방부 조달을 종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후 마스크 수입은 시장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연방정부가 발병 초기 도입한 락다운이 해제되고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점차 확진자 수가 재증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2차 감염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입장을 초기와 달리 권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대중교통 사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발표했다. 이외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인 의무 규제를 도입하는 중이다.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으로 인해 소비자 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사재기” 현상의 퇴화, 연방정부의 물량 비축, 해외수입여건의 정상화, 내수 생산 압박 등으로 인해 일시 폭등했던 마스크의 가격이 정상화되어 초기와 달리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스크는 기존 일부 온라인 매장이나 약국을 통해 판매되었으나 일반 생필품점까지 유통 채널이 확대되었다. 이런 일반 소매유통망과 더불어 전문의료기관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 대상 직수출 보다는 수입 유통업체를 공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출 시 CE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연방정부는 10월 9일 까지 의료 및 기타 보호/소모품에 대한 관세 부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한국의 경우 이후에도 한-EFTA FTA를 통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므로 다소 유리한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자료: SRF, Global Trade Atlas, 20 minuten, Style, Just Style, The local, Central Plus, 스위스 연방정부, KOTRA 취리히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필리핀 수술용 마스크 시장동향

- 2020년 상반기 따알 화산 폭발 및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 급증 -
- 중국산 제품과 경쟁 위해 비가격 경쟁력 확보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이 중요 -

□ 상품 개요

- 상품명 : 수술용 마스크(Surgical Mask)
- HS Code : 6307.90.40

□ 시장동향

- 시장 규모
-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수입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640만 달

러 규모를 기록해 전년 대비 16.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특히 2020년 상반기 필리핀 다알 화산 폭발,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1485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수입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HS Code : 6307.90) 수입시장 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년 4월
수입액	11,426	11,243	14,140	16,407	14,850
증가율	73.81	1.6	25.77	16.03	200.3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생산 현황

- 코로나19 발생 전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바타안(Bataan) 지역에 위치한 Medtecs International Corp 사가 유일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Yokosaida Philippines Corp 사를 포함한 EMS, New Kinpo Group, P&G, and Ever Win International Group 사 등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세페리노 로돌포 차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필리핀의 월평균 수술용 마스크 생산 규모는 2500만 개 수준임.

□ 수입시장 동향

○ 주요 수입국

-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42.17% 증가한 1018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총 수입액 중 62.09%의 점유율을 차지함.
- 그 뒤로는 미국(133만 달러/8.13%), 싱가포르(80만 달러/4.87%), 한국(71만 달러/4.36%), 일본(67만 달러/4.1%) 등이 차지함.
- 중국산 수술용 마스크의 인기 요인으로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대한 수입 규모

- 필리핀의 한국산 수술용 마스크 수입액은 2019년 기준 71만 5000달러 규모로 주요 수입 대상국 중 4.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4위를 기록함.
- 2019년 수입액 기준 전년 대비 19.99% 감소를 기록하며 다소 약세를 보임.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점유율	증감률 (‘18/’19)
1	중국	6,363	7,166	10,188	62.09	42.17
2	미국	878	1,072	1,334	8.13	24.48
3	싱가포르	804	920	800	4.87	- 13.12
4	한국	804	894	715	4.36	- 19.99
5	일본	381	1402	672	4.10	- 52.03
6	영국	22	56	464	2.83	729.25
7	대만	264	287	330	2.01	15.27
8	베트남	485	419	298	1.82	- 28.83
9	호주	108	110	263	1.60	139.80
10	독일	132	182	231	1.41	26.67

주 : 순위 및 점유율은 2019년 기준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 동향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따르면 MEDTECS 사 및 YOKOISADA 사가 필리핀의 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체이며 EMS, NEW KINPO, P&G 사에서도 수술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기업

기업 정보	로고
○ MEDTECS INTERNATIONAL CORPORATION - 전화번호: +63-2-8817-9000 - 이메일: franc@medtecs.com.ph - 홈페이지: http://www.medtecs.com/en/ - 주소: 7B Country Space 1 Bldg. 133 H.V Dela Costa St., Makati City 1227	
○ YOKOISADA (PHILS.) CORPORATION - 전화번호: +63-45-8499-3028 - 이메일: tepliveros.ypc@gmail.com -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koisada-Phils-Corporation-100679791708316/?ref=page_internal - 주소: Phase I Lot C-2&D (B) Clark Premiere Industrial Park, M.A Manuel A. Roxas Hwy, Clark Freeport, 2023 Pampanga	
○ EMS - 전화번호: +63-49-8541-0213 - 홈페이지: https://www.ems.com.ph/emsg/ - 주소: 117 Technology Avenue, Laguna Technopark, Inc. SEPZ, Biñan, Laguna, Philippines	
○ NEW KINPO GROUP - 전화번호: +63-2-8662-2660 - 이메일: careers@kinpo.com.ph - 홈페이지: https://www.newkinpogroup.com/en-US/ - 주소: Block 7, Lot 1, Main Blvd, Malvar, 4217 Batangas	
○ P&G - 전화번호: +63-2-8894-3955 - 이메일: recphilippines.im@pg.com - 홈페이지: https://www.pgcareers.com/location-Philippines - 주소: 5th Avenue, Crescent Park We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1634 Philippines 1226	

□ 관세율 및 규제

○ 관세율

- Philippine Tariff Commission에 수술용 마스크(HS Code: 6307.90.40) 관세율 조회 결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15% / 한-아세안 FTA(AKFTA) 활용 관세율 0%로 조회됨.
- MFN 관세 대비 AKFTA 활용 관세 실익이 크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활용할 것을 권장함.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HS Code: 6307.90.40) 관세율 조회 결과

AHTN CODE	6307.90.40	
PRODUCT DESCRIPTION	- - Surgical masks	
YEAR	2020	
Applicable Tariffs		
Data	MFN*	AKFTA
Applicable Tariff Rate (%)	15	0
Rules of Origin	CC, provided that the fabrics of 50.07, 51.11 through 51.13, 52.08 through 52.12, 53.09 through 53.11, 54.07 through 54.08, 55.12 through 55.16, 58.01 through 58.02, 60.01 through 60.06 are originating in the the territory of any party and the good is both cut or sewn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or RVC(40)	

자료: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 수술용 마스크 수입 규정

- 필리핀에 수술용 마스크 수입 시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 의료기기 관련 규정

- 필리핀에 의료기기 수출 시, 모든 수입자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ct of 2009 (Republic Act No. 9711) 법에 의거 필리핀 식약청(FDA)의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함.
- 제품을 판매하기 전 필리핀 식약청(FDA)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품목별로 개별 수입 등록을 진행해야 수입이 가능

○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의료기기 등급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Class A부터 가장 위험도가 높은 Class D로 구분됨.
- Class A는 FDA에 신고(Notification)를 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제품에 신고번호가 부여됨.
- Class B~D의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Registration)을 신청하면 FDA의 검토를 거쳐 등록번호가 부여됨.
- 의료기기 등급 분류에 대해서는 필리핀 식약청 의료기기 관할 부서인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CDRRHR)로 문의해야 함.

○ 규제 개요

- 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LTO(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한 필리핀 현지 업체가 필요하며, 필리핀 국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현지 유통업자(딜러/에이전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수입, 등록,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의료기기는 각 모델/브랜드 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명서(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CPR)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같은 모델의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때, 해당 증명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함.
- 방사선을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별도로 CDRRHR(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에서 발행하는 인체에 무해함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의료기기 별 인증서 취득 구분

등록 대상 의료기기	CLASS	등록 비대상 의료기기
CMDN	A	CMDL
CMDR	B	CMDN

CMDR	C	CMDN
CMDR	D	CMDN

- * CMDN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Class A 의료기기 신고 증명서)
- * CMDR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Class C, B, D 의료기기 등록 증명서)
- * CMDL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Listing(연구, 임상, 전시 등 비판매용 의료기기 등재 증명서)

○ 의료기기 등록 시 제출 서류

- 제조업체/무역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제조업체/무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의 유효한 사업허가증(LTO)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대리인의 사업허가증)
- 원산지 국가 정부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필리핀 영사관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제조판매등록증명서
- 제조업체의 제조국 내 기업/법인등록 증명서 및 ISO (GMP) 증명서
- 제조업체와 필리핀 현지의 무역/유통/수입업체 간 체결된 계약 증명서
- 제품의 소매가(제안)
-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한 사용량 및 기술 규격서
- 제품의 사용방법, 제조에 있어서의 시설 및 관리, 가공 및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 등
- 완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절차
- 완제품에 대한 기술규격서 및 물리적 기술서
-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안정성 연구 보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라벨 샘플 또는 라벨링 재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제품 샘플 또는 필리핀 내에서 시판될 때 사용될 상업적 소개 자료
- 등록 비용 납부 증명서

* 등록을 위한 서식, 점검표 등의 자료는 이하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2.fda.gov.ph/industry-corner//downloadables/233-medical-device-registration-requirements>

○ 등록 유효기간

- 최초 등록 1년 / 갱신 등록 5년
- CMDN/CMDR 유효 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공증 받은 갱신 신청서와 영업허가서, 제품 등록 인증서 원본, 유효한 GMP/ISO 인증서, 제품 샘플 등 제출(신청비: USD 115, 소요기간 약 2~3 개월)
- 등록 유효기간 만료 120일 이후 신청 시, 기존 등록 사항은 폐기되며 최초 신청으로 간주

○ 필리핀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www.fda.gov.ph
- 전화번호 : +63-2-8857-1999
- 이메일 : ncgpuno@fda.gov.ph / cdrrhr@fda.gov.ph
- 주소 :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Metro Manila
- 의료기기 관할 부서 : Center for Device Regulation, Radiation Health and Research (CDRRHR)

□ 시사점

○ 2020년 상반기 마스크 수요 급증

- 2020년 상반기 필리핀에 발생한 따알 화산 폭발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
- 실제로 필리핀의 2019년 수술용 마스크 수입액은 총 164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4월에 벌써 1485만 달러 규모의 수입액을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0년 수술용 마스크 수입 총액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산 마스크가 필리핀 총 수입액의 60% 이상 차지
 - Global Trade Atlas의 수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 기준 필리핀의 수술용 마스크 수입국 중 중국은 약 62%의 비중을 차지함.
 - 타 국가의 수입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 특성상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가까워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아세안 FTA(ACFTA)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필리핀 시장을 장악함.
- 우리 기업 제언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필리핀의 마스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의료용품 유통 업체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마스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함.
 - 필리핀에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식약청의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취득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 취득 프로세스를 숙지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 Global Trade Atlas,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식약청(FDA),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내 세균 및 바이러스 확산억제 위한 공기청정기 수요 높아져 -
- 다기능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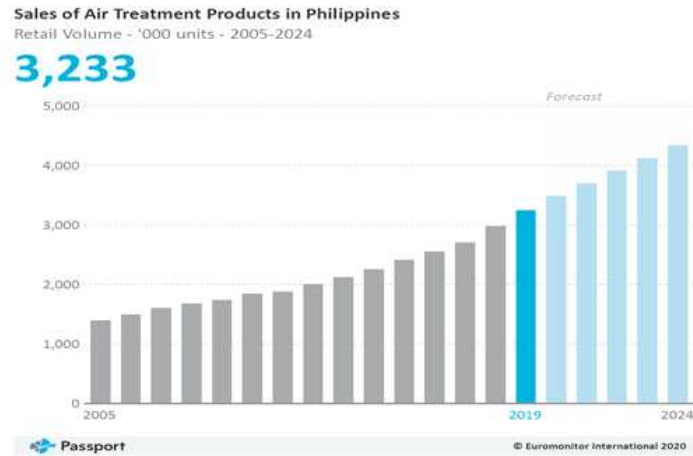
□ 상품 개요

- 상품명: 공기청정기
- HS Code: 8421.39.20

□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 공기청정기 시장 지속 성장세 전망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공기청정기 제품 소매 판매량은 전년대비 9% 증가한 320만 대에 이룸.
 -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202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4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 판매 전망
(단위: 천 대)



자료: 유로모니터

□ 필리핀 공기청정기 수입동향

○ 최근 3년 수입동향

-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19년 전체 공기청정기 수입의 39%인 3962만 달러 기록. 그 다음으로 일본(13.3%), 미국(7.3%), 태국(6.2%), 말레이시아(5.9%), 한국(5.3%), 싱가포르(4.8%), 독일(3.8%), 인도(2.8%), 벨기에(2.5%)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최근 3년간 필리핀의 공기청정기 수입 상위 10개국 수입액 및 비중
(단위: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2019/20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 세계	44,091,789	38,741,804	39,617,230	100.0	100.0	100.0	-5.2
1	중국	19,793,507	11,805,331	15,469,133	44.9	30.5	39.0	-11.6
2	일본	3,198,462	7,658,229	5,283,233	7.3	19.8	13.3	28.5
3	미국	2,157,690	1,559,831	2,895,346	4.9	4.0	7.3	15.8
4	태국	1,478,380	3,477,660	2,453,927	3.4	9.0	6.2	28.8
5	말레이시아	1,946,392	3,713,677	2,334,482	4.4	9.6	5.9	9.5
6	한국	4,782,250	1,752,056	2,113,061	10.8	4.5	5.3	-33.5
7	싱가포르	1,668,761	2,594,859	1,916,968	3.8	6.7	4.8	7.2
8	독일	2,134,714	1,686,081	1,494,025	4.8	4.4	3.8	-16.3
9	인도	2,283,840	788,704	1,090,053	5.2	2.0	2.8	-30.9
10	벨기에	318,251	893,160	1,002,279	0.7	2.3	2.5	77.5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 필리핀 對한국 수입동향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對한국 공기청정기 수입은 총 211만 달러이며, 연도별 한국의 수출금액 변동 폭이 큰 편임.

최근 3년간 한국의 공기청정기 對필리핀 수출 동향
(단위: kg, 달러)

2017		2018		2019		증감률 2019/2018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411,068	4,782,250	138,744	1,752,056	101,733	2,113,061	-33.5

자료: Tradeline Philippines

□ 경쟁 및 유통 동향

- 높은 기술력, 낮은 가격으로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을 사로잡는 해외 기업
 - Sharp Corporation, Panasonic Corporation, Midea Group, Xiaomi Inc., Daikin Industries Ltd, Broad Group, YADU Int'l Technology(Beijing) Co., Ltd.와 같은 세계적인 공기청정기 기업들은 낮은 가격 및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이외에도 Rabbit Air(미국), Levoit(미국), Dyson(싱가포르), Panasonic Corporation(일본), Unilever(미국), Honeywell International Inc.(미국), Midea Group(중국), Coway Co., Ltd.(한국), Xiaomi Inc.(중국), Koninklijke Philips N.V.(네덜란드), Daikin Industries, Ltd.(일본), Samsung(한국), Blueair(스웨덴), LakeAir(미국), IQAir(스위스), Broad Group(중국), Whirlpool Corporation(미국), AB Electrolux(스웨덴), YADU Int'l Technology(Beijing) Co., Ltd.(중국), Austin Air(미국), BONECO AG(스웨스), Airgle Corporation(미국), Airdogusa(미국), Sharp Corporation(일본) 등이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의 예상 경쟁기업임.
- 공기청정기 제품분류 및 판매 동향
 - 필리핀은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에어컨을 생활 필수품으로 여김. 필리핀 중산층과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및 공기 정화 기능을 탑재한 다기능 상품이 생산되는 추세임.

공기청정기 제품 및 가격 정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특징	가격(폐소)
Blueair Pro L Air Purifier		- 공기정화기능인 HEPA Silent 보유 - 무소음 작동	5만9995 (약 145만 원)
Midea MAP-076GD Air Purifier		- 애완동물 냄새 제거 기능 - 아로마 테라피 기능	2만9990 (약 73만 원)
Airfree P150 Air Purifier		- 곰팡이, 먼지 진드기, 박테리아, 바이러스, 꽃가루, 기타 알러지 제거 기능 - 실내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 기능	2만 3500 (약 57만 원)

Sharp FP-GM30E-B Air Purifier with Mosquito Catcher		- 욕실 냄새 제거에 탁월	1만 4998 (약 36만 원)
Xiaomi AC-M2-AA Mi Air Purifier 2		-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으로 가정, 아파트, 주택 가전기기로 안성맞춤 - 스마트폰 연동 원격제어 가능	6490 (약 16만 원)
3PCS LED Air Purifier Ozone Ionizer		- 전자담배, 벽난로에서 나오는 유해 활성 산소 제거에 탁월 - 내구성이 높음.	2333.29 (약 6만 원)
Ultra Quiet Air Purifier 5L		- 무소음 작동	1446 (약 4만 원)
Homu Air Purifier and Revitalizer with LED Light J283		- 작은 크기로 책상 위에 두고 사용 가능 - 실내 악취, 대기오염물질, 기타 유해한 매연 등을 정화	869 (약 2만 원)

자료: 필리핀 온라인 쇼핑 플랫폼(Lazada, Shopee)

□ 공기청정기 구매자 인터뷰

Q1. 간단한 회사소개 요청

A1. Fortress Dental은 지난 30년간 치과재료를 공급해 온 업체다. 현재 14명의 영업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보건소, 학교, 도매상이다.

Q2. 주력 제품이 아님에도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이유는?

A2. 치과, 의료기관 및 일반가정의 공기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기정화기를 구매 및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기 정화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됐다.

Q3. 필리핀 공기청정기 수요는 어떠한지, 목표 구매층은 누구인가?

A3. 코로나19 사태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편이다. 현재 치과와 의료기관이 주요 구매층이며 일반 가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Q4. 공기청정기 구매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A4. 우리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 고품질 제품을 찾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우리가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킨다.

Q5. 필리핀 공기청정기 수입 및 유통에 있어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A5. 필리핀에서 수입 공기청정기를 유통하려면 선등록이 요구된다.

□ 관세율 및 인증

- 수입 관세율: 공기청정기 품목별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대체로 0%이나 HS코드별 확인 필수
- 공기청정기(HS코드: 8421.39.20)의 MFN(가장 선호하는 국가) 수입 관세율은 1%임. 한-아세안 FTA 관세규정에 따르면 제품 중 최소 40%가 한국 또는 RVC 40에서 제조된 경우 0%임.

HS Code 및 관세율

AHTN CODE	8421.39.20	
PRODUCT DESCRIPTION	- - - Air purifiers	
YEAR	2020	
Applicable Tariffs		
Data	MFN*	AKFTA
Applicable Tariff Rate (%)	1	0
Rules of Origin	General Rule (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or RVC(40), or CTH)	
Legend		
MFN: *	Applicable rates of duty for January to June 16, 2017 are the 2016 rates; Applicable rates of duty for January to March 4, 2019 are the 2018 rates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RVC(40)	Regional Value Content of 40%	

자료: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공기청정기
 - 의료기기는 기기, 기구, 재료, 물질 또는 기타 품목으로써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으로 또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조자가 인체예의 사용을 의도하고 사용목적이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에 있음.
 - 최근 FDA는 South Florida 대학의 Yogi Goswami 교수가 만든 Air Pro RX(의료용 공기정화시스템)이 2급 의료기기로서 인증돼 수술실, 응급실, 격리실 등에서의 사용이 승인됨.
- 제품 통보 또는 등록 요구사항
 - 보건부(DOH)는 필리핀의 의료기기 규정을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에 맞추기 위해 수입, 수출, 마케팅, 제조, 유통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에 의료기기 통보 또는 등록하는 방침을 포함한 신규 지침을 발표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기업은 의료기기의 위험 분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통보 또는 등록하지 않고서는 필리핀에서 의료기기를 수입, 수출,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없음. 이전에는 등록 가능한 의료기기 목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선정한 의료기기 목록에 한해서만 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위험 분류에 따른 통보 또는 등록절차를 준수해야 함.
 - 보건부(DOH) 행정명령 제2018-0002호(ASEAN 통합기술요건에 기초한 의료기기 허가서 발급에 관한 지침)는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 체계를 채택함.(의료기기 위험수준: A 낮은 수준 / B 낮은에서 보통 수준 / C 보통에서 높은 수준 / D 높은 수준)
 - A등급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통보절차가 요구되며 B등급, C등급, D등급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등록절차가 요구됨. 연구, 임상, 전시 및 검증된 최신 의료기기는 통지 및 등

록절차가 면제됨. 단 이러한 의료기기의 연구자, 기관 및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의료 목록 인증서(CMDL)를 신청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통지절차 완료 후 의료기기 통지인증서(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가 발급되며, 등록절차 완료의 경우 의료기기 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가 발급됨.
- 이미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지침에 따른 등록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보유한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의 위험구분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통보 또는 등록요건을 결정해야 함.
- 연구, 임상, 전시물 또는 기증 대상 의료기기 사용자는 CMDL로 제품을 보호해야 함.
- 모든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및 효능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제품이 적절한 요구사항과 통지 또는 등록절차에 대한 지원 서류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

□ 시사점

- SARS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공기 청정 기능(HEPA, UV, 이온화 등)이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100%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카지노, 병원, 헬스장 등에서 세균 및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공기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필리핀 중산층 성장 및 가계소득 증대로 웰빙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인 공기청정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시장 진출 시 온라인 판매 권장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필리핀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등과 제휴 및 판매하는 것을 추천
 - 해외 공기청정기 제조 및 유통기업들이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다기능 및 저렴한 가격을 갖춘 제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 있음.

자료 : 유로모니터, Tradeline Philippines, 필리핀 식약청(FDA),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Lazada, Shopee, 네이버 지식백과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4. 캐나다 전기·전자 인증제도 특징 및 절차

- 해당 품목 CSA, ULC 등 안전인증 취득해야 수출·판매 가능 -
- 진출 전 인증 필수 여부, 취득 절차, 소요기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
- 온타리오 주 전시회용 전기전자제품은 사전 허가 필요 -

캐나다 전기·전자제품 인증 개요

캐나다에서 전역에서 판매 또는 수입되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은 캐나다 전기 규정(Canadian Electrical Code)의 기술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인증이 필수적이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인증은 캐나다 표준위원회(SCC, Standards Council of Canada)*가 공식 인정한 기관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공식 지정된 인증기관

외에서 발급받은 인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캐나다 표준위원회(SCC): 캐나다 국가 표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정 및 개폐하고 감독하는 캐나다 혁신과 학경제개발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SCC가 지정한 주요 공인 인증기관

기관명	웹사이트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www.csagroup.org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ULC)	www.ulc.ca
Electrical Safety Authority Field Evaluation(ESAFE)	www.esafieldevaluation.ca
FM Approvals	www.fmglobal.com
IAPMO Research and Testing Inc.	www.iapmrt.org
Intertek Testing Services	www.intertek.com/electronics
Met Laboratories Inc.(MET)	www.metlabs.com
Nemko North America Inc.	www.nemko.com
NSF International	www.nsf.org
OMNI-Test Laboratories Inc.	www.omni-test.com
QPS Evaluation Services Inc.	www.qps.ca
QAI Laboratories Ltd.	www.qai.org
SGS North America Inc.	www.sgs.com
TÜV SÜD America Inc.	www.tuvam.com
TÜ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www.tuv.com/en/usa/home.jsp

자료: 캐나다 표준위원회(SCC)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다. 이 협회가 발급하는 CSA 인증은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전국적으로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령 제정 시 CSA 규정 중 하나인 캐나다전기규약(CE Code Part I)을 참조한다. 이 규약은 전기설비 설치자, 규제 기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전기 안전 표준으로, 최신 기술 및 발전 사항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업데이트된다. 캐나다 주별로 상이한 전자제품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SA 인증은 캐나다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다. 특히, 가스연소기구, 전기기구 등 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CSA 규격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CSA 개요

명칭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표준협회
규격	· 캐나다의 전기·전자제품 안전 및 강제규격 · 가스연소기구, 전기기구 등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규격이며, 품질관리 등 위험성이 없는 제품은 임의규격임.
관련기관	· 캐나다 본사: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CSA 한국 사무소: CSA코리아 · 한국 내 업무제휴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CSA와 상호협약으로 공장심사 수행
대상품목	· 가정·상업용 전기·전자제품, 산업용기기, 소비재, 생명과학(의료기기 포함), 에너지, 오일·가스, 건축용품, 정보통신기술(ICT) 등 8개 산업분야 1,800개 이상의 품목 · 품목 리스트: https://www.csagroup.org/testing-certification/product-areas/
인증절차	① 예비신청, ② 신청서 작성 및 송부, ③ 시험 실시, ④ 평가서 통보, ⑤ 승인심의 및 인증 결과 통보, ⑥ 협약서 작성, ⑦ 공장검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⑧ CSA 라벨 발급
인증마크	
참고	· CSA는 2003년 UL(미국안전인증)과 MOU를 체결 · 북미지역의 인증 취득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UL과 CSA의 시험과정을

단일화하고 공장시험 결과 정보 등을 공유함.

· CSA와 UL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인증으로 상호 호환 취득이 가능함.

자료: CSA Group,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ULC(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은 미국 인증기관 UL의 캐나다 지사로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C-UL, cUL 인증 발급기관이다. CSA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및 세계 각국에 오피스가 있으며, CSA 인증과 상호 호환 취득이 가능하다.

ULC 인증마크



자료: ULC

각 지역(주·준주)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과 인증기관 선택 권한은 각 주정부가 가지고 있다. 제품에 따라 주별로 상이한 법령과 감독 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며 우리 기업은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규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지역별 전기·전자관련 주요 기관 및 법령

지역명(주·준주)	관련 기관	관련 법령
온타리오	Electrical Safety Authority(ESA)	- 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 - Ontario Regulation 438/07
퀘벡	Approval of Electrical Equipment Régie du bâtiment du Québec	- The Canadian Electrical Code - The Building Act
앨버타	Alberta Municipal Affairs	- Safety Codes Act - Electrical Code Regulation - The Canadian Electrical Code(Section 3)
브리티시 컬럼비아	Technical Safety BC	- Safety Standards Act - Electrical Safety Regulation - The Canadian Electrical Code(Section 20)
서스캐처원	SaskPower	- The Electrical Inspection Regulations - Electrical Inspection Act
매니토바	Manitoba Hydro	- Manitoba Electrical Code - Manitoba Electrical Code Regulation - The Canadian Electrical Code
노바스코샤	Government of Nova Scotia, Department of Labour and Advanced Education	- Electrical Code Regulations - Electrical Installation and Inspection Act
뉴브런즈윅	Government of New Brunswick	- Electrical Installation and Inspection Act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 Newfoundland and Labrador Electrical Regulations - Public Safety Act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Government of Prince Edward Island	- Electrical Protection Act of the Province of Prince Edward Island

		- The Canadian Electrical Code
노스웨스트 준주	Government of Northwest Territories	- Electrical Protection Regulations - Electrical Protection Act
유콘	Government of Yukon	- Electrical Protection Regulation - Electrical Protection Act
누나부트	Government of Nunavut Territory, Department of Community and Government Services	- The Electrical Act (Technical Standards & Safety Act) - Nunavut Electrical Protection Act - Technical Standards & Safety Act

자료: UL Canada, 관련 기관 웹사이트

온타리오 주 전기·전자제품의 인증 및 관련 규제

온타리오 주는 주정부 산하기관인 전기안전청(ESA, Electrical Safety Authority)에서 전자제품·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ESA를 통해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CSA, ULC, Intertek* 등의 인증 취득 관련해 문의할 수 있다. 각 인증기관에 연락을 취해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지역의 주정부 기관을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정부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9년 12월 9일 ESA는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양국 간 전기안전관리 기술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Intertek은 캐나다표준위원회(SCC)에서 지정한 주요 인증기관 중 하나로 cETL 마크를 사용하며 캐나다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캐나다 표준위원회(SCC)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가운데 한 곳의 인증만 취득하면 전자제품의 수출·판매 등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 냉난방기 등 특정 위험 품목은 CSA 획득이 의무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성을 증명하는 감독기관의 공식 마크나 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공인된 인증 마크



자료: ESA

온타리오 주 인증 제외 대상

인증 취득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의 경우 몇 가지 품목 및 상황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주 내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인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대신 전시회 참가 전 ESA에 전시 허가(Permission to Show)와 시연 허가(Permission to Energize)를 받아야 한다. 전시 허가는 전시하는 모든 전자제품 중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의무사항이며 시연 허가는 전자제품 중 작동이 필요한 제품에 한한다. 시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전시장내에서 시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캐나다 건축박람회에 참가했던 한국 업체 A사는 무인증 전자제품을 ESA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채로 전시장 내에서 시연해 전시회 관계자로부터 제품의 전원을 끄도록 요구 받은 사례가 있다. 전시회에서 사용되는 부스 장치조명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SA 전시 허가 및 시연 허가신청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비용은 각 C\$ 68.93(전시 허가), C\$ 158.20(시연 허가)가 소요된다. 또한, 전시회 참가 시 전원을 사용해 제품을 시연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전시하는 경우엔 전시 허가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양식은 온타리오 주 전기안전청으로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 Permission to Show/Permission to Energize Notification 신청서: <https://esafe.on.ca/files/esafe/pdf/Forms/Permission-to-Show-Page-101.pdf>

** 팩스: +1-800-667-4278

이메일: sa.cambridge@electricalsafety.on.ca,

주소: 400 Sheldon Dr., Unit 1, Cambridge, ON, N1T 2H9,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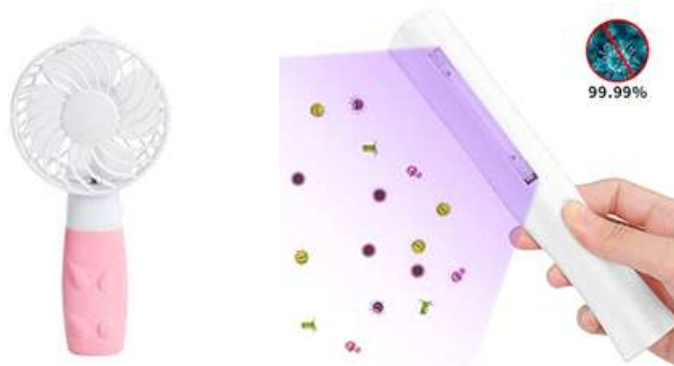
일부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인증 취득과 함께 전시 허가 또한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휴대용 전자제품의 경우 인증 취득, 전시 허가가 불필요하다.

코로나19로 전시장 내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 전자제품(예:휴대용 선풍기, LED 소독기)제품과 관련해 ESA를 접촉한 결과, 해당 제품이 건전지로 작동할 경우에는 인증, 전시 허가, 시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전자제품 중에서도 충전기(콘센트 등을 이용해 전원을 공급하는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 전압 등 종류에 따라 충전기에 대한 인증, 전시 허가 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ESA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충전기가 캐나다 전기안전규격(CSA C22.2) Class 2에 인증된 경우 하드웨어는 인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참고로 Class 2 어댑터는 100VA, 30V rms, 42.4 V peak, 60V dc 이하 전원공급 등의 특징으로 제한된다.

그 외의 인증 제외 대상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xceptions to product approval requirements: <https://esafe.com/electrical-products/product-approval-exceptions/>

인증 취득, 전시 허가 등이 불필요한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주: 건전지로 작동되는 기기

자료: Amazon Canada

시사점

캐나다 바이어들은 안전성을 위해 CSA, ULC 등 주요 인증 취득을 완료한 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이 인증들이 캐나다 내 대표적으로 통용되지만 진출전 바이어가 선호하는 인증과 관련해 사전 논의하여 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역별 제품 안전 체제에 대한 상세 문의 내용은 각 관할지역 검사당국에 직접 연락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한편, 미국 UL을 획득한 경우에도 바이어가 CSA나 ULC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LC는 UL과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UL과 ULC는 동일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캐나다 바이어들은 주로 ULC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UL 취득 시 ULC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제품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및 소요시간은 확인 가능한 대외공개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해 온타리오 주 전기안전청(ESA) 소속 기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CSA, ULC 등의 관련 인증들은 전기전자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비용 및 발급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형화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자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준비 전 ESA의 Product Safety Department에 제품의 인증이 필수인지를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을 조언했다.

CSA 인증은 온라인으로 사전 문의가 가능하다. CSA Group 온라인 문의처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정보, 연락처, 제품 카테고리, 제품 설명 등의 정보를 기입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CSA 소속 기술 담당자로부터 제품별 인증 절차, 취득 소요 기간 등 관련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차, 언어 등의 문제로 현지 인증 발급기관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을 통해 해외인증 관련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문의처는 아래 참고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 관련 기관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웹사이트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CSA)	- 전화번호: +1-866-797-4272 - 온라인문의: www.csagroup.org/contact/ - 이메일: client.services@csagroup.org	www.csagroup.org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ULC)	- 전화번호: +1-866-937-3852 - 온라인문의: canada.ul.com/contact-us/ - 이메일: cec@ul.com	www.ulc.ca
ESA(온타리오주 전기안전청)	- 전화번호: +1-866-937-3852 - 이메일: field.evaluation@esafe.org	esasafe.com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전화번호: 080-808-0114 - 온라인문의: www.ktl.re.kr/customer/ask/question/ask.do?category=2&menuId=000001	www.ktl.re.kr

자료: 각 기관 웹사이트,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 캐나다 표준위원회(SCC), 캐나다표준협회(CSA), 온타리오 주 전기안전청(ESA), ULC, Amazon Canada, 각 기관 웹사이트, ESA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